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1 월 선교편지

JAN 1, 2018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 51:3)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2018년 첫 번째 선교편지를 보내 드립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섬김을 부탁 드립니다. 이제 더욱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어,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1. 한센인 마을 어린이 교육후원 사역과 한센인 극빈자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한센인 마을 2017년 마지막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한센인 자녀 120명 교육후원과 성탄 선물 전달,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후원해 준 의족 3개 전달, 또 몇몇 다른 선교사님들과 현지 신학교 학생들의 동참으로 한센인 분들 상처 치료까지.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얼마 전 한센인 자녀 중 10살 된 남자 어린이한테 한센병이 발병되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어린이의 상처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8년에도 한센인 마을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분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기를 기도 바랍니다.

2. 숨바섬 산속 마을 욕탄 어린이 입천장 수술과 발가락 수술을 하였습니다.

숨바섬 뿔루빤장 산속에 있는 욕탄 어린이를 발리로 데리고 나와 입천장 수술과 발가락 수술을 하였습니다. 발리에 데리고 오자마자 닭튀김과 우유와 쵸코렛을 사 주었더니 얼마나 맛있게 허겁비겁 먹는지, 그동안 정말 많이 배고품으로 고생을 한 모습이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수술을 잘 마치었고 발리에서 많은 선물과 맛있는 것들을 먹고 숨바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욕탄 어린이 수술을 통하여 숨바섬 산속마을에 더욱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 많은 마을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 바랍니다.

3. 복음학교 순회 선교팀 들과 함께 숨바섬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학교 순회선교팀들과 함께 12 월 16 일부터 21 일까지 숨바섬 사역을 하였으며 14 군데 마을을 방문하면서 예배사역, 어린이사역, 식량배급사역을 하면서 12 월 성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금번에는 비가 많이 내려 더 많은 곳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었기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들을 다니며 마음껏 예배하며 성탄의 의미들을 전하였다. 특별히 일행 중 연세가 80 세이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험한 산길을 2-3 시간씩 걸어서 산을 함께 넘으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지..... 주님께서 이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무럭 무럭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4. 2018년 첫번째 숨바섬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2018년 첫번째 숨바섬 사역을 오륜교회 대학부 32명과 함께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금번에는 3시간 반 동안 걸어 산을 넘어 들어가야 되지만 교회 건축을 시작한 라밍깃 마을도 방문할 예정이며, 또한 최초로 서숨바 지역 2군데도 방문하여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2018년 숨바섬 사역들을 통하여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숨바섬 산속마을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숨바섬 지역을 얽매고 있는 어두운 영의 권세가 끊어지어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5. 숨바섬 산속마을 현지 사역자 2018 년 5 월 성령 수련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하고자 하는 숨바섬 현지 사역자 성령 수련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정말 지난 10년간 숨바섬 산속마을에서 묵묵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 50여명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난 10년 숨바섬 사역을 통해 수많은 마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 중 약 95%가 비행기를 타 본적이 없고, 숨바섬을 벗어나 본적도 없으며, 정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성령 수련회를 위한 재정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분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6. 말랑 UKCW 기독종합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2017년 UKCW대학 성탄 예배를 비록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아직 대학이 법정 소송 가운데 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힘들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UKCW 대학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기에 지금의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UKCW 대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또한 준비 중에 있는 새로운 대학 캠퍼스 마련을 위한 재정이 모여질 수 있도록, 총장단과 교수진들이 더욱 성령충만하여 대학의 영적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한 저희 부부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2018년이 주님의 비전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은총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드림